

오피니언

다산포럼

안경환



서울에 한참 산 외국인인 말이다. 한국은 정말 '재미있는' 나라 라고, 그가 보기에 '재미있는' 현상 중의 하나가 도처에 '동창회' 모임이 많다는 것이다.

서울에 한참 산 외국인인 말이다. 한국은 정말 '재미있는' 나라 라고, 그가 보기에 '재미있는' 현상 중의 하나가 도처에 '동창회' 모임이 많다는 것이다.

'동창회'는 무슨일을 하는가?

교적 표현일 것이다.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은 한국인의 상식이다. 즉 한국인에게 동창회란 근본적으로 학교를 생각하는 모임이 아니라, 동창생을 생각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이다.

'학교' 없는 '사람' 위한 모임

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경'(在京)이란 지시어를 머리에 단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다. 심중팔구 학교에서는 그런 모임이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아름과 그리움을 함께 회상하는 매개체일 뿐이다. 전형적인 동창회보는 철지난 인사보고서를 연상시킨다. 누가, 언제, 무슨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의 대종을 이룬다. 현직(顯職)을 통해 동창의 위상을 높여주는 은근한 자랑이 깔려있다.

'학교의 장래' 고민해야 할 때

하다. 어쩌다 '졸업 및 십주년'기념으로 모교를 찾는 졸업생은 예외 없이 감동에 잠긴다. 그리고는 급식지킴(今昔之感)에 젖는다. 자신들의 학생시절에 비해 놀라게 달라진 교사, 엄청나게 좋아진 여건에 감탄한다.

선거가 없는 해의 동창회는 경조사 행기는 일로 바쁘다. 요즘 들어 부쩍 동창 소식에 바쁘다. 우편으로 도착하는 청첩장이나 패스, 이 메일, 휴대폰으로 급박하게 날아든다. 주로 부음이지만 다른 내용도 많다.

정년 학교의 장래를 걱정하는 동창이라면 옛날과 현재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장래를 위해 이 시점에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20대 취업자수 21년 만에 최저라니

20대 취업자 수가 2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20대 취업자의 감소는 산업현장의 고령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경제 활력의 급격한 약화가 우려된다.

'창출의 실패'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대의 '고용의 질' 악화도 문제다.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545만7천명 가운데 대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156만5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9만7천명이나 늘었다.

내일 재·보선 투표에 적극 참여합시다

10·25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해남·진도와 인천 남동읍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화순과 신안 등 4곳에선 기초단체장 선거가, 경기 고양 등 3곳에선 광역 또는 기초의원선거가 치러진다.

선거는 투표이다.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선관위는 투표율이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NGO 칼럼

이승철



얼마 전 언론에는 흥미로운 세 가지 연속적인 사건이 보도되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이 일본·한국·중국·러시아를 순방하며 대북제재 동참을 요구하였고 특히 한국에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첫 번째는 미국에 대한 문제이다. 근본원인을 미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미국은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9·19 베이징 합의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미 직접대화에 나서야 한다.

북핵사건 원인과 해법

그렇다면, 전 세계를 흔들며 놓은 이 사건의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가? 필자는 그 근원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에서 찾는다.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자. 2005년 9월 19일 베이징에서 북한과 미국은 수십년간 진행되어온 적대관계를 평화적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는 미국과 북한, 한국의 각각 다른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첫 번째는 미국에 대한 문제이다. 근원원인을 미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미국은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9·19 베이징 합의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미 직접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미국은 우리 민족에게 내셔야 한다.

심각한 청소년 흡연문제 근본적 대책 세워야

얼마전 광주시 총장로 골목골목을 지나가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버섯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봤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흡연이다. 흡연은 건강을 해치는 행위이다. 청소년들의 흡연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비 오는 날 동물원 풍경



우치 동물원의 경우 초식동물 우리가 꽤 넓어 여러 초식동물들이 모여 살고 있다. 하지만 모든 초식 동물들이 함께 모여 살지는 않는다. 하마나 코끼리 같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동물은 자신들만의 영토를 고수하고, 사슴이나 얼룩말 같은 예민한 동물들은 자기 무리가 없으면 불안해한다.

우치 동물원의 경우 초식동물 우리가 꽤 넓어 여러 초식동물들이 모여 살고 있다. 하지만 모든 초식 동물들이 함께 모여 살지는 않는다.

독자마당

재·보궐선거, 인센티브 보다 자발적 참여의지 기대

오는 25일 전남 지역 4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재·보궐선거는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보다 투표참여율이 현저히 낮다. 때문에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해남·진도·화순·신안군선관위는 모범유권자를 시상하는 것은 기본이고, 각 선거구별 실정에 맞춰 다양한 투표참여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無等鼓

"내 생애에 본 가장 훌륭한 팔(Best arm I have ever seen in my life)" 1964년 미 프로야구 뉴욕 메츠의 스퀘어 아드먼 레드 머프가 텍사스 스퀘어 아드먼 레드 머프를 직접 본부 직할 스퀘어 아드먼 리포트 내용이다. 그 고교생이 훗날 메이저리그 마운드를 장악한 전설적인 강속구의 투수 놀란 라이언(Nolan Ryan)이다.

기록은 74년 8월 20일 캘리포니아 에인절스 소속으로 에너하인스타디움에서 던진 100.9마일(162.35km)이다. 커브의 스피드도 잘 던지는 투수의 빠른 공과 맞먹는 시속 89마일(143km)에 이르렀다.

공의 구속(球速)



대선배 라이언이 이던 야구팬이나 후배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인 그의 공식 기록은 130

공의 속도를 능가하는 데 대한 의심을 품었고 결국, 팬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스피드건을 조작한 것일뿐 이들의 최고 속도는 96마일(154km)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Table with newspaper information includi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and contact details for various departments.